

東醫寶鑑 外形篇 手門의 鍼灸法에 대한 小考

이기병, 이준무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

A bibliographical study o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he Hand Section (in the Oehyeong Chapter) of the Dong Ui Bo Gam

Kee-Byoung Lee, Joon-Moo Lee

Dep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show the rationale of point-selection with regard to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described in the Hand section(the Oehyeong chapter) of Dong Ui Bo Gam.

Methods : First, the cause of each disease in the Hand section(the Oehyeong chapter) of Dong Ui Bo Gam was summarized, based on which the rationale of acupoint-selection with regard to the cause of disease, physiology of the Oriental medicine, properties of each acupoints, flow of meridian pathways and specific acupoints, etc.

Results and Conclusions : The most of the acupoints referred to in the Hand section(the Oehyeong chapter) of Dong Ui Bo Gam, belong to the area surrounding the tenderpoint. Still, when a point around the tender point is taken, it does not simply mean it works because of its proximity to the spot of a specific symptom. Rather, such acupoint-selectin should be explained by the cause of disease, physiology of the Oriental Medicine and properties of each acupoint along with aspects such as the flow of meridian pathways and properties of specific acupoint.

Key words : Dong Ui Bo Gam, specific acupoints, rationale of acupoint-selection

1. 서론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의학 서적으로는 최초로 등록된 東醫寶鑑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의 醫書 중에서도 다시 한번 주목 받게 되었다. 東醫寶鑑의 外形篇 手門의 鍼灸法을 살펴보면 내용의 분류에 있어 그 전에 설명하고 있는 外形篇 手門의 증상의 분류와 서로 맞지 않아 이를 서로 연결하여 병의 근원을 판단하고 選穴하기에

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選穴原則, 症狀에 따른 運用方法에 관해서 임상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단지, 外形篇 手門의 鍼灸法에서는 病名에 관해 治療 穴만을 羅列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바로 臨床에 응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상지에 나타나는 증상의 근본 원인을 판단하여 치료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따라서 東醫寶鑑 外形篇 手門과 鍼灸 治療法에 설명되고 있는 증상이 어떤 원리로 나열되었으며, 나열되고 있는 증상에 따른 選穴의 원칙에 어떤 原理가 적용되는지를 把握하고자 한다.

· 교신저자: 이준무,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 Tel. 033-730-0662, E-mail : jmllee@sangji.ac.kr

· 투고 : 2009/08/28 심사 : 2009/12/21 채택 : 2009/12/23

II. 연구방법

1. ‘東醫寶鑑’의 手門 外, 東醫寶鑑 內 다른 門과 비교하였다.

東源文化社에서 2001년에 出版된 再編附翼 東醫寶鑑을 引用하여 東醫寶鑑 手門의 鍼灸法에 사용된 穴들과 東醫寶鑑 手門 外에 이 穴들이 사용된 부분들을 찾아 비교, 분석하고 고찰하여 手門에서 사용된 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2. ‘大學經穴學各論’에서 手門에 記載된 穴들과의 비교하였다.

東醫寶鑑 手門에 나와 있는 각각의 病症들에 대해 東醫寶鑑은 어떠한 辨證으로 治法을 提示하고 있으며 그 治法에 해당 病症의 選穴된 穴들이 韓醫科大學 公同 교과서인 ‘大學經絡經穴學各論’의 그 穴의 主治와 一致하는지를 알아보았다.

3. 그 외 참고문헌과의 비교 고찰하였다.

東醫寶鑑의 鍼灸法에 관해서 引用한 文獻의 原文을 찾아보아, 引用文獻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選穴의 의의와 東醫寶鑑에서의 選穴의 의의를 비교 분석한다. 만약, 引用文獻과 東醫寶鑑에서의 選穴에 대한 의의가 一致하지 않는다면 그 외의 참고문헌을 살펴보아 東醫寶鑑에서 言及된 病變의 原因과 選穴된 穴들의 穴性과 主治를 인용하고 결과를 고찰하였다.

III. 결과

東醫寶鑑 外形篇 手門에 나와 있는 내용을 定理하면 우선적으로 手에 관해 전반적인 外形의 骨度法과 手가 거느리는 범위, 손가락의 名稱, 四肢의 生理에 있어서의 의의, 診察 方法 그리고 각종 病症을 나열하고 湯證과 鍼灸法을 言及하고 있다¹⁾. 病症에 대한 區分은 陰陽의 強弱에 의해 발생한 ‘四肢熱’, 脾, 胃의 문제인 ‘四肢不用’, ‘肩臂病’의 原因, 痰飲에 의한 上肢의 痛症, 六經에 따른 上肢의 病變, 風邪에 따른 四肢의 病變, 손가락 麻木, 肩臂骨의 脫臼, 손의 異常症狀, 손톱의 상태를 이용하여 진단에 참고할 수 있는 病變, 代指, 손발의 龜裂에 관해서 설명하고 單方과 鍼灸法에 관해 說明하고 있다¹⁾.

상지에 관해, 生理面에서 살펴보면 ‘東醫寶鑑 外形篇 手門’에서 ‘四肢는 陽의 根本이다. 陽이 盛하면 四肢가 實하다. 또, 모든 陽은 사지로부터 기운을 받는다.’라고 言及하고 있다¹⁾.

東醫寶鑑에서 手足의 疾患은 風寒濕의 六氣와 經絡의 虛實 등에 의해 發生하기도 하고 五臟과의 聯關되어 疾患이 올 수도 있다고 定理되어 있다¹⁾. 手足은 몸통에서 뻗어 나온 가지로 ‘脾主四末’하므로 五臟 中 脾의 상태를 반영하고 上下肢를 분리하면 上肢는 心肺에 下肢는 肝腎에 配屬한다.

四肢不用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東醫寶鑑의 내용은 內景篇一 氣門의 氣生於穀, 內景篇二 血門의 血爲榮, 內景篇二 津液門의 亡陽證, 內景篇三 肝臟門의 肝病證, 心臟門

의 心病證, 脾臟門의 脾病證과 脾病虛實, 肺臟門의 肺病證, 腎臟門의 腎病證, 胃腑門의 胃爲水穀之海, 胃病虛實, 內景篇四 大便門의 脾泄, 外形篇三 胸門의 積心痛, 雜病篇二 風門의 風痺, 偏枯, 雜病篇四 內傷門의 辨內外傷證 辨身痛, 虛勞門의 解休證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1,2)}. 이를 살펴보면 첫째로 陰陽과 氣血에 의해서, 둘째로 五臟六腑의 病變에 의해, 세째로 外邪에 의해, 네째로 內傷, 虛勞에 의해 上肢의 病變이 發生하는 것으로 定理할 수 있다.

手門에 기재되어 있는 病因을 살펴보면, 肩臂의 病因에 대해서는 臟腑學的으로 心和肺, 外形的으로 筋과 骨, 外感의 原因으로 風寒濕, 內傷의 原因으로 七情, 痰飲, 食積, 瘀血로 定理할 수 있다¹⁾.

東醫寶鑑 手門에 記述되어 있는 病變을 手門과 다른 門에서 참고하여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痰飲多胃脾痛에 관해서는 內景篇二 痰飲門 王隱君痰論의 내용을 보면 ‘四肢骨節煩疼 併無常所 乃至手麻臂痛...’, ‘留飲’에서는 ‘胸中有留飲 其人短氣而渴 四肢歷節痛 脈沈細(仲景).’, ‘留飲者 水停心下 背冷如手掌大 或短氣而渴 四肢歷節疼痛 脇痛引缺盆 咳嗽轉甚(入門).’, ‘留飲之證 四肢歷節痛 氣短脈沈 久則令人骨節蹉跌 恐爲癰...’, ‘溢飲’에서는 ‘飲水流行 歸於四肢 當汗出而不汗出 身體重痛 謂之溢飲...’, 痰飲流注證의 내용을 보면 ‘...手脚冷痺 氣脈不通 誤認爲癰瘕亦非也.’, ‘濕痰流注 上行攻臂 臂不能舉, 或左右轉移...’

라고 하였다¹⁾.

結陽證에 관해서는 浮腫門의 結陽證에서 ‘內經曰 “結陽者 腫四肢.”, 註曰 “素嘗氣疾, 濕熱加之氣 濕熱爭 故爲腫也. 邪氣漸成 正氣漸微 陽氣衰少 致邪代正 氣不宣通 故四維發腫 諸陽受氣 於四肢也.” ‘今人見手足關節腫痛 全以爲風治者 誤矣...’라고 기술되어 있다²⁾.

肩臂骨脫臼는 上記한 留飲之證에 ‘留飲之證이 오래되면 뼈마디가 어긋난다.’고 記述되어 있다¹⁾.

手循衣撮空摸床의 原因에 관해서는 手門에서 肺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¹⁾.

心虛手振에 관해서는 雜病篇四 內傷門의 酒傷에 언급하고 있는데 解釋하면 ‘술로 인해 胃氣가 고르지 못하면 精氣가 消耗되어 四肢에 營養을 공급하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²⁾.

手爪를 보고 病을 把握함에는 內景篇三 肝臟門의 肝病證에 ‘肝熱者 色蒼而爪枯(內經 痿論篇 第四十四)’라고 했으며 內景篇三 膽腑門의 膽外候에는 ‘肝應爪 爪厚色黃者 膽厚 爪薄色紅者 膽薄 爪堅色青者 膽急 爪濡色赤者 膽緩 爪直色白無約者 膽職直 爪惡色黑多紋者 膽結也(靈樞 本藏 第四十七).’라고 언급하고 있다¹⁾.

1. 肩髃 係兩手之 安否.

‘양쪽 손이 불편하면 肩髃 部分에서 異狀이 나타날 수 있다.’

針灸資生經 第五 肩痹痛에서 ‘蓋肩髃 系兩手之安否.’라고 언급하고 있다³⁾.

陽蹻脈은 運動을 主하고, 陽明經의 筋은

肩部에서 結한다. 따라서 肩髃(LI15)를 살펴 보면 陽明經에서 일어난 手부의 異狀을 判斷할 수 있다. 肩髃(LI15)을 눌러보아 痛症이 있으면 그 部分의 經筋이 뭉쳐서 血의 흐름이나 神經을 刺戟하여 兩手의 陽明經으로 이어지는 部分에서 저린감, 疼痛, 痲痺 등을 呼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五指拘攣, 取三間 前谷, 五指皆痛, 取陽池 外關 合谷.

‘다섯 손가락에 痲攣이 일어나면 三間과 前谷을 取하라. 다섯 손가락이 모두 아프면 陽池, 外關, 合谷을 取하라.’

醫學綱目 卷之十二 肝膽部 諸痺 痛痺에서 ‘[《撮》] 五指拘攣.. 三間 (一分, 先瀉后補灸之) 前谷 (一分, 瀉之, 灸) 五指皆痛.. 陽池 外關 合谷...’이라고 기재되어 있다⁴⁾. 以下の 上肢 疾患에 대한 治療 方法을 醫學綱目에서는 肝膽部の 痺症 內에서 다루고 있다.

三間(LI3)은 大腸經의 體重節痛을 主하는 俞穴으로써 祛風除濕, 疏利關節, 通經活絡, 除痺止痛의 效能이 있어서 手指와 手背의 腫痛을 治療한다⁵⁾.

前谷(SI2)은 舒筋活絡, 祛風散寒, 除痺止痛의 效能이 있어 頭項急痛, 臂痛, 肘攣, 手指麻木 등을 治療한다⁵⁾.

陽池(TE4)는 前谷(SI2)과 같이 舒筋活絡作用과 除風濕止痺痛의 效能이 있어 腕痛, 肩臂痛 등을 治療한다⁵⁾.

外關(TE5)은 理氣活血, 通絡止痛하는 效能이 있어 上肢痛麻를 治療하는 要穴이다.

頸, 肩, 背痛, 肘臂屈伸不利, 手指疼痛, 手顫 등을 治療한다⁵⁾. 또한 鍼灸大成 卷十 手足腰門에 보면 ‘五指皆疼 外關.’이라고 언급하고 있다⁷⁾.

合谷(LI4)은 皮毛를 주관하는 手太陰肺經과 表裏를 이루며 多氣多血한 手陽明大腸經의 原穴로서, 解表散邪, 清熱解毒하여 風疹, 痲疥 등의 皮膚疾患을 治療한다. 通經活絡止痛의 作用과 祛風除濕散寒의 效能도 있어서 肩, 項, 上肢痲木疼痛, 腰脊痛을 治療한다⁵⁾.

合谷(LI4)의 曲池(LI11) 配合으로 治療할 수 있는 上肢症狀들은 中風, 手肩腫痛, 上肢不遂 등이 있다. 大腸經으로 同經의 穴이고 原穴과 合穴을 相配로 配合하여 消風解表, 通經活絡의 效能을 나타낸다⁵⁾.

3. 兩手攣急 偏枯, 取大陵.

‘양쪽 손이 痲攣이 나거나 偏枯가 되면 大陵穴을 取하라.’

醫學綱目 卷之十二 肝膽部 諸痺 攣에서 ‘[《甲》] 兩手攣不收伸及掖偏枯不仁, 手瘦偏小筋急, 大陵主之. 掖拘攣, 暴脈急引脇而痛, 內引心肺, 謔謔主之.’라고 언급하고 있다⁴⁾.

醫學綱目에서 引用하였다고 하나 醫學綱目에서 一致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東醫寶鑑 雜病篇 卷之二 風門 中風大法有四를 보면 ‘血氣偏虛 半身不遂 肌肉枯瘦 骨間疼痛 謂之偏枯(直指). 虛邪 偏客于身半 其入深 內居榮衛 榮衛稍衰 則眞氣去 邪氣獨留 發爲偏枯(仲景). 偏枯者 半身不遂 肌肉偏不用 而痛言不變 智不亂 病在分腠之間 宜溫臥 取汗且巨鍼取之(仲景). 偏枯者 手足爲邪氣阻塞 脈

道而然...'라고 언급되어 있다²⁾. '偏枯'는 '血氣가 한쪽으로 虛한 경우, 虛邪가 몸의 반쪽에 侵入한 후 榮衛에 머물 경우, 邪氣가 손발의 脈을 막아서 생길 경우'에 發病한다고 하였다.

大陵(PC7)이 속한 手厥陰心包經은 脈을 주관하는 心을 대신하여 邪氣를 받는다. 따라서 脈의 所生病을 주관하게 된다. 手厥陰心包經의 是動病은 '手心熱, 臂肘攣急, 腋腫, 甚則胸脇支滿, 心中憺憺大動, 面赤, 目黃, 喜笑不休.'이고 所生病은 '煩心, 心痛, 掌中熱'이다⁵⁾.

4. 肘攣筋急, 取尺澤.

醫學綱目에 正確히 一致하는 文句는 없지만, 卷之七 陰陽臟腑部 刺灸通論 刺寒熱入治寒熱法에서 '行間治膝腫腰疼, 尺澤去肘疼筋緊.'라고 언급하고 卷之十一 肝膽部 破傷風癰瘰에서 '[《甲》] 卒心中痛, 癰瘰, 互相引, 肘內廉痛, 心熬熬然, 間使主之. 熱病先手臂, 身熱癰瘰, 唇口聚, 鼻張, 目下汗出如轉珠, 兩乳下二寸堅, 脇滿, 悸, 列缺主之. 振寒癰瘰, 手不伸, 咳嗽唾濁, 氣膈善嘔, 尺澤主之.'라고 引用하고 있으며 卷之十二 肝膽部 諸痺 痛痺 (卽痛風)에서는 '[《甲》] 手臂不得上頭, 尺澤主之. 臂不可舉, 頭項痛, 咽腫不可咽, 前谷主之. 肘臂腕中痛, 頸腫不可以顧, 頭項急痛眩, 淫灑肩胛, 小指痛, 前谷主之. 肘痛不能自帶衣起, 頭眩領痛, 面黑, 惡風, 肩痛不可顧, 關沖主之. 肘痛引肩, 不可屈伸, 寒熱, 頸項肩背痛, 痿痺不仁, 天井主之 (《千金》云.. 肩肉麻木). 肘中濯濯, 臂內廉痛, 不可及頭, 外關主之. 肘

痛, 尺澤主之.'라고 尺澤(LU5)에 관하여 說明하고 있다. 그리고 卷之十二 肝膽部 諸痺 攣에서도 '[《玉》] 兩肘俱攣.. 曲池 (九分, 先瀉后補, 補四呼, 瀉九吸) 尺澤 (手如弓, 方可針五分, 先補后瀉).'라고 기재되어 있다⁴⁾.

尺澤(LU5)은 祛風舒筋, 通絡止痛의 效能이 있어 肘臂攣痛, 臂不能舉 등을 治療한다. 尺澤(LU5)은 手太陰肺經의 合水穴이고 四變穴에 해당된다⁵⁾.

5. 肩不可動 臂不可舉, 取肩髃 巨骨 清冷淵 關衝.

東垣十書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과 혹은 類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文章을 찾을 수가 없었다.

肩髃(LI15)은 手陽明經과 陽蹻脈의 交會穴로 祛風濕, 通經絡, 利關節의 效能이 있어서 肩背手臂痛, 上肢不遂 등에 사용되는 穴이다⁵⁾.

巨骨(LI16)은 手陽明大腸經과 陽蹻脈의 交會穴이다. 따라서 通經活絡, 祛風散寒止痛의 效能이 있어 肩背, 手臂疼痛, 不可屈伸 등을 治療한다⁵⁾.

關衝(TE1)은 三焦經의 井金穴이자 起始穴로 清三焦之熱하는 效能이 있어서 熱로 인하여 上腕의 三焦經筋을 말려 늘어나지 못하여 上腕을 들 수 없을 때와 三焦經上으로의 韌帶 炎症으로 因하여 舉動하지 못할 때, 關衝(TE1)의 少陽風熱을 清瀉할 수 있는 效能으로 治療할 수 있다⁵⁾.

清冷淵(TE11)은 清利三焦濕熱하고 活絡止

痛하는 效能이 있다. 上肢의 少陽經筋을 따라 熱로 因한 病變이 생겼을 때, 淸冷淵(TE11)을 使用하여 熱을 解消시켜서 肩背痛 不舉 등을 治療한다⁵⁾.

6. 臂膊痛 痲痺, 取肩髃 手三里 外關 肩井 曲池 手上廉 合谷.

醫學綱目 卷之十二 肝膽部 諸痺 痛痺에서 ‘[《撮》] 臂膊疼痛.. 肩髃 手三里 外關.’, ‘[《摘》] 臂膊疼痛, 并痲痺.. 肩髃 肩井 曲池.’, ‘[《集》] 臂膊痲痺疼痛.. 肩髃 曲池 手上廉 合谷.’라고 引用하고 있다⁴⁾.

醫學綱目에서 疼痛과 痲痺로 구분해서 언급한 穴들을 東醫寶鑑에서는 모아 놓았다.

肩髃(LI15)는 手陽明經과 陽蹻脈의 交會穴로 祛風濕, 通經絡, 利關節의 效能이 있어서 肩背手臂痛, 上肢不遂 등을 治療한다. 陽蹻脈은 運動을 主하고, 陽明經의 筋은 肩部에서 結한다. 肩髃(LI15)은 散風, 淸血, 通絡의 效能이 있어 肩關節의 모든 疾患을 治療한다. 曲池(LI11), 手三里(LI10), 外關(TE5)과 配合하면 上肢運動癱軟無力을 治療한다. ‘外關(TE5), 合谷(LI4)’과 配合하면 上肢痲痺를 治療한다.

手三里는 舒筋通絡, 祛風勝濕散寒의 效能이 있어서 上肢不遂, 肩臂疼, 肘攣 등을 治療한다. ‘肩髃(LI15)’에서 上記한 대로 ‘肩髃(LI15), 曲池(LI11), 外關(TE5)’과 配合하면 上肢運動癱軟無力을 治療한다.

外關(TE5)은 手少陽三焦經의 絡穴이고 모든 陽經을 維系하는 陽維脈과 通하는 八脈 交會穴이다. 祛六淫解表, 消風解表의 效能이

있다. 祛風濕, 通經絡, 止痺痛의 效能이 있어서 上肢痛麻를 治療하고 肘臂屈伸不利, 手指疼痛, 手攣 등을 治療하는 要穴이다. ‘肩髃(LI15)’에서 上記한 대로 ‘肩髃(LI15), 曲池(LI11), 手三里(LI10)’와 配合하면 上肢運動癱軟無力을 治療하고 ‘肩髃(LI15), 合谷(LI4)’과 配合하면 上肢痲痺를 治療한다⁵⁾. ‘肩髃(LI15), 曲池(LI11), 合谷(LI4)’과 配合하면 肩臂痛과 上肢痲痺에 效能이 있다⁵⁾.

肩井(GB21)은 手足少陽과 足陽明 및 陽維脈의 交會穴이다. 舒經活絡, 祛風除痺, 通經止痛의 效能이 있어 肩背臂痛, 手臂不舉, 頸項強痛 등을 治療한다. 肩井(GB21)의 疏肝膽氣滯, 淸陽明鬱熱, 疏經活絡 作用과 ‘曲池(LI11)’는 合土穴로 行陽明經氣, 和淸熱하는 作用이 더해져서 疏經通絡, 淸熱利濕, 疏肝解鬱 作用이 되며 效能이 倍가 된다⁵⁾.

曲池(LI11)는 祛風濕, 利關節, 通經絡, 止痺痛의 效能으로 上肢不遂, 肘臂痛 등을 治療한다. 風寒濕邪가 筋脈을 侵襲하여 氣血을 鬱滯하면 筋脈關節이 活動能力을 잃게 되는데 이 때, 局部를 取하면 絡이 通하고 筋이 舒하며 氣血이 通調하므로, 曲池(LI11)은 疏通經絡, 調和氣血의 效能이 있어 肩臂를 治療하는데 效果的이다. 中風七處穴로서 上肢의 痛症을 治療할 뿐만 아니라 中風, 半身不遂 등을 治療하는 穴이다. 肩井(GB21)는 上記했듯이 ‘肩井(GB21)’과 ‘曲池(LI11)’를 配合하면 臂痛을 治療한다⁵⁾. ‘肩髃(LI15), 外關(TE5), 合谷(LI4)’ 또는 ‘外關(TE5), 合谷(LI4)’과 配合하면 上肢痲痺를 治療한다. ‘合谷(LI4)’과 配合하면 兩手不仁을 治療한다. 肩髃(LI15)에서 上記했듯이 ‘肩髃(LI15),

手三里(LI10), 外關(TE5)'과 配合하면 上肢 運動癱軟無力을 治療한다. '手三里(LI10)'와 配列하면 肘部痛에 效果가 있다⁵⁾.

手上廉은 手陽明大腸經의 上廉(LI9)이다. 舒筋活絡, 祛風除痺, 活血止痛의 效能이 있어서 手臂麻木, 肩背疼痛, 半身不遂 등을 治療한다⁵⁾.

合谷(LI4)은 2.에서 언급하였다. 皮毛를 主管하는 手太陰肺經과 表裏를 이루며 多氣多血하다. 手陽明大腸經의 原穴로서, 解表散邪, 清熱解毒하여 風疹, 痲疥 등의 皮膚疾患을 治療한다. 通經活絡止痛의 作用과 祛風除濕散寒의 效能도 있어, 肩, 項, 上肢麻木疼痛, 腰脊痛을 治療한다. '曲池(LI11)'와 '合谷(LI4)'을 配合하면 曲池(LI11)의 祛風解表, 調和氣血, 通經活絡作用과 合谷(LI4)의 原穴로서의 通經活絡, 消風解表, 清泄肺氣, 通降腸胃, 鎮靜安神의 作用이 더해져서 原合相配가 되므로 消風解表, 通經活絡의 效能이 增大된다⁵⁾.

東醫寶鑑에서 언급한 穴들을 보면 肩部에서 手指端 사이의 穴들을 選穴하고 있다. 肩髃(LI15)나 肩井(GB21)은 阿是穴의 主가 되고 肩臂痛의 대부분이 痰飲과 血氣滯이니 脾生痰 痰聚於胃하여 足陽明胃經의 穴들을 取한 것인 것이다⁸⁾.

또한, 肩臂部分의 經筋分包에 따라 痛處와 가장 가까운 部分인 曲池(LI11)에서 手指까지의 穴들을 取한 것으로 整理할 수 있다.

7. 肘痛不可屈伸, 取天井 尺澤.

醫學綱目 卷之十二 肝膽部 諸痺 痛痺에서 ' [《甲》] 手臂不得上頭, 尺澤主之...肘痛引

肩, 不可屈伸, 寒熱, 頸項肩背痛, 痿痺不仁, 天井主之(《千金》云: 肩肉麻木). 肘中濯濯, 臂內廉痛, 不可及頭, 外關主之. 肘痛, 尺澤主之.'이라고 언급하고 있다⁴⁾.

醫學綱目に 正確히 一致하는 文章은 없다.

天井(TE10)은 手少陽三焦經의 合土穴이자 自經의 瀉穴이다. 穴性は 經絡의 痰濕을 化하고 疎三焦氣化한다. 祛風濕, 通經絡의 作用이 있어 頭項痛과 肩臂痛을 治療한다⁵⁾.

尺澤(LU5)은 4.에 언급한 바와 같이 祛風舒筋, 通絡止痛의 效能이 있어 肘臂攣痛, 臂不能舉 등에 效果가 있다. 屈伸不利에서 잘 活用할 수 있는 四彎穴에 해당된다⁵⁾.

이 두 穴의 調合은 阿是穴의이고 局部 韌帶 損傷에 의한 屈伸不利 일 때, 前面部에 尺澤(LU5), 後面部에 天井(TE10)을 刺鍼하여 刺戟療法으로 神經의 刺戟과 病變 部位의 血의 흐름을 좋게 하여 治療의 速度를 높이는데 效果를 주기 위하여 痛症 部位의 經筋部分의 穴들을 直接 選穴하여 치료하였다고 할 수 있다.

8. 肘臂腕痛 取前谷 液門 中渚.

醫學綱目 卷之十二 肝膽部 諸痺 痛痺에서 ' [《玉》] 臂痛連腕: 液門(沿皮向后透陽池瀉) 中渚(沿皮透腕骨瀉)', ' [《甲》] 手臂不得上頭, 尺澤主之. 臂不可舉, 頭項痛, 咽腫不可咽, 前谷主之. 肘臂腕中痛, 頸腫不可以顧, 頭項急痛眩, 淫灑肩胛, 小指痛, 前谷主之.'라고 언급한 두 文章을 著者の 臨床經驗에서 나온 理論에 의해서 整理한 것으로 보여 진다⁴⁾.

前谷(SI2)은 2.에서 언급한 바에 같이 舒

筋活絡, 祛風散寒, 除痺止痛 등의 효능이 있어서 頭項急痛, 臂痛, 肘攣, 手指麻木 등을治療한다.

液門(TE2)은 三焦經의 榮穴이자 五行 中水穴로 熱과 水를 다스린다. 따라서 熱로 因한 炎症이 있을 때 이 穴로서 調節하여 治療가 可能하다 할 수 있다. 疏筋通絡의 效能이 있어 手臂痛 등에 사용한다. 中渚(TE3)와 配合하면 手臂紅腫을 治療한다⁵⁾.

中渚(TE3)은 兪木穴이고 自經의 補穴이다. 穴性은 ‘解半表半裏之邪, 清三焦經絡之熱, 舒筋通絡’의 性向이 있다. 兪穴은 體重節痛을 主하고, 關節痛과 神經痛을 治療한다. 舒筋活絡, 痛痺止痛의 效能이 있어서 肩背手臂痠痛, 手指不能屈伸, 項強 등을 治療한다. 三焦의 熱邪가 經絡을 따라 上愚해서 鬱한 熱을 解消시키고 上癰之邪火를 내리며 舒筋活絡하는 效能이 있다. 木의 特性은 위로는 熱(太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밑에서는 땅으로부터 물(水)을 吸收하여 同化作用을 계속 할 수 있도록 恒常性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關節의 韌帶에 損傷이 發生하여 熱을 發生할 때, 中渚(TE3)로서 調節하여 治療 效果를 높일 수 있다⁵⁾.

위의 液門(TE2)과 調合하면 子母相配, 相互爲用하고 液門(TE2)의 清熱瀉火, 消腫止痛의 作用과 中渚(TE3)의 散風熱, 通經絡의 作用이 合해져서 消風清熱, 通絡止痛의 效能이 極大化 된다. 따라서 手臂紅腫連腕疼을 治療하는데 좋은 效果를 나타낸다.

前谷(SI2)은 太陽經筋이 傷했을 때, 液門(TE2)과 中渚(TE3)는 少陽經筋이 傷했을 때, 選穴한 것이다. 位置上으로 보면, 肩部에

서는 中央부터 後面部位까지의 病變, 肘關節은 肘頭에서 後面部까지, 腕關節은 尺骨側面부터 手背面的 痛症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9. 臂痠攣, 取肘髎 竅陰 尺澤 前谷 後溪.

醫學綱目 卷之十二 肝膽部 諸痺 痛痺에서 ‘[東] 臂酸攣: 肘髎 竅陰 尺澤 前谷 后溪.’라고 記錄되어 있다⁴⁾.

다른 項目에서는 대부분 上肢의 穴만 사용하나, 여기에서는 足指의 穴을 언급하고 있다. 竅陰(GB44)은 膽經의 井金穴이고 終止穴이다. 熄風痺, 清肝膽, 疏氣火라는 穴性이 있다. 上肢와 관련된 主治 病變은 ‘手足煩熱, 轉筋, 肘不可舉’가 있다. 手少陽三焦經과 上下接境을 이루고 있어서 三焦經을 따라 發生하는 臂痛에 관련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臂不及頭를 治療한다⁵⁾.

肘髎(LI12)는 祛風通絡, 利關節, 散風寒, 止痺痛(疏利關節)하는 效能으로 肘節風痺, 臂痛不舉屈伸攣急, 肘臂麻木不仁을 治療한다. 洋方的으로는 抗炎, 鎮痛作用이 있어, 上腕骨(肱骨)外上踝炎, 肘關節 및 關節周圍軟部組織損傷, 류마티즘 關節炎 등에 비교적 좋은 效果가 있다⁵⁾.

尺澤(LU5)은 上記한 바에 따라 祛風舒筋, 通絡止痛의 效能이 있어 肘臂攣痛, 臂不能舉 등을 治療한다⁵⁾.

前谷(SI2)도 위에서 언급한 바에 같이 舒筋活絡, 祛風散寒, 除痺止痛에 效果的인 穴이어서 頭項急痛, 臂痛, 肘攣, 手指麻木 등을

治療한다.

後谿(SI3)은 小腸經의 兪木穴이고 自經의 補穴이다. 또, 督脈과 通하는 八脈交會穴이다. 輸木穴이므로 榮輸治外經의 原則에 根據하여 肩胛, 肘臂, 腕 및 手指의 經脈이 지나는 곳의 疼痛, 痲痺 疾患을 治療한다. 祛風寒, 祛風濕, 通經絡, 止痺痛의 效能이 있어 頭項, 頸肩部疼痛, 肘臂小指拘急疼痛 등을 治療한다. 太陽의 寒水를 主하므로 清熱利濕의 效能이 있다. 濕熱로 因한 痲痛과 痲攣이 있을 때도 使用이 可能한 穴이다⁵⁾.

痲痛이란 濕熱로 因한 痛症이고 이 文章에서 말하는 攣은 熱로 因한 痲攣을 말한다. 火熱이 쌓여서 水液이 잘 通하지 못해 停滯되어 濕熱이 생긴다²⁾. 그리고 熱로 因해서 熱痲攣을 일으킨 것이다. 이를 治療하기 위해 督脈과 通하는 後谿(SI3)을 選穴했고 助力穴로서 榮水穴인 前谷(SI2)으로 ‘水’를 調節하여 ‘熱’을 制舉하도록 하였다. 肘膠(LI12)와 尺澤(LU5)은 阿是穴로서의 作用이 강하다. 竅陰(GB44)은 足少陽膽經의 井穴로서 上下接境으로서 上肢의 少陽經의 氣運을 북돋아주어 血의 흐름을 좋게 하여 臂의 痲攣을 治療한다고 할 수 있다.

10. 腕痛 取陽谿 曲池 腕骨.

醫學綱目 卷之十二 肝膽部 諸痺 痛痺에서 ‘[《撮》] 腕痛.. 陽谿 曲池.’, ‘[《玉》] 腕無力并痛.. 腕骨 (橫針入三分, 痛則瀉, 無力則補) 曲池 (補瀉同上).’라고 記錄되어진 두 文章을 著者の 의도에 의하여 整理하여 記錄한 것으로 보인다.

陽谿(LI5)는 大腸經의 經火穴이다. 疏筋利

節, 通經活絡, 祛風濕, 止痺痛의 效能으로 臂腕痛, 活動不利 등을 治療한다⁵⁾.

曲池(LI11)는 上記한 바와 같이 祛風濕, 利關節, 通經絡, 止痺痛의 效能으로 上肢不遂, 肘臂痛 등을 治療한다.

腕骨(SI4)은 小腸經의 原穴로서 祛風舒筋, 活絡止痛의 效能으로 項強, 指攣臂痛, 頸項頷腫, 驚風, 痲癢 등을 治療한다. 小腸經脈이 지나가는 部位의 痛症인 腕痛도 같이 治療한다⁵⁾.

醫學綱目에서는 腕痛과 腕無力痛을 따로 分離하여 記述하고 있으나 東醫寶鑑에서는 整理하여 ‘腕痛’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醫學綱目에서 서술한 바로는 前者는 外感 濕熱이고 後者는 痰飲이나 瘀血로 因한 內傷으로 보인다.

11. 兩胛痛 取肩井 支溝.

卷之二十七 肺大腸部 肩背痛 肩痛에 ‘[《玉》] 肩端腫.. 肩髃 (二寸半, 瀉九吸.) 腕骨 (七分, 先瀉后補.) 兩胛痛.. 肩井 (二寸半, 不宜久停針.) 支溝.’ 라고 언급하고 있다⁴⁾.

肩井은 上記한 바와 같이 手足少陽과 足陽明 및 陽維脈의 交會穴이다. 舒經活絡, 祛風除痺, 通經止痛의 效能이 있어 肩背臂痛, 手臂不舉, 頸項強痛 등을 治療하는 效能이 있다⁵⁾.

支溝(TE6)는 三焦經의 經火穴이고 自性穴이다. 三焦의 氣機를 調節하여 通經絡, 止痺痛의 效能으로 肩背痲痛 등을 治療한다⁵⁾.

選穴한 肩井(GB21)과 支溝(TE6)를 보면 少陽經의 穴들로 上下, 內外, 前後의 사이에

서의 氣血 調節의 失常으로 인한 痛症임을 유추할 수 있다.

IV. 고찰

東醫寶鑑 外形篇 手門 鍼灸法の 分類와 選穴은 直接的으로 해부학적인 痛處에 관련 있는 症狀에 관해 選穴, 痛處의 變증에 따른 他經과의 관계에 따른 選穴 그리고 痛處가 속해 있는 經絡 路線에 따른 他經과의 관계에 따른 選穴을 한 것으로 思料된다.

東醫寶鑑 外形篇 手門의 鍼灸法을 살펴보면 손, 손가락, 팔꿈치, 어깨, 손목의 部位別 痛症으로 治療穴을 選穴하고 屈伸의 문제, 痠痛과 痙攣의 문제, 痲痺에 따라서도 治療穴을 選穴하고 있다¹⁾. 그러나 東醫寶鑑 外形篇 手門의 전반적인 分類에 대한 제목이나 內容과 東醫寶鑑 外形篇 鍼灸法에서 分類한 제목과는 서로 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上肢에 대한 痛症이 상지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原因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治法에 의한 辨證도 그 根本 原因을 찾아 根治을 해야 하기 때문에 外形의 分類로 ‘手’라고 區分은 했으나 治療 方法인 鍼灸法에는 다른 分類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일 먼저 肩髃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肩髃(LI15)가 上腕의 제일 위쪽에 위치한 手陽明大腸經의 上肢의 마지막 穴로서 上肢部の 陽明經에 문제 發生 時에 變化가 나타날 수 있는 穴로 診察해 볼 수 있어서 언급한 것이라고 思料된다.

五指拘攣, 皆痛에 관하여서는 醫學綱目에서 上肢疾患을 屈伸 할 수 없는 痺症으로

把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인용한 東醫寶鑑에서도 上肢疾患을 痺症에 준해서 把握하고 있다. 이 증상에 三間(LI3)과 前谷(SI2)을 配合하면 手陽明의 兪木穴로서 子母相配, 相生相濟하므로, 疏風의 效能이 있다. 손가락에 風이 들어와 痙攣이 일어날 때, 이 2개의 穴은 阿是穴로서의 作用도 있지만, 五兪穴의 穴性도 같이 가지고 있으므로 配合하여 쓰면 效果가 卓越할 것으로 考慮해 볼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 ‘兩手攣急 偏枯’를 보는 視覺은 四肢末端의 局部的인 問題가 아니라 氣血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긴 虛症, 寒邪에 의한 問題 등으로 起因한 ‘偏枯’로 본 것이다. 手厥陰心包經의 是動病과 所生病에서 보듯이 火熱로 인한 症狀들이 많다. 心包는 火에 屬하고 手厥陰은 風을 本氣로 한다. 風은 火를 더 조장한다. 따라서 火로 因해 血이 마를 경우 脈을 막아 偏枯가 생기고 虛邪가 心에 侵入하여 心包가 그 邪氣를 받은 후 營氣에 머물 경우에 偏枯가 발생한다. 따라서 心包經의 邪氣를 瀉해야 하는데, 瀉할 때는 瀉其子해야 하므로 手厥陰心包經의 子穴이자 土穴인 大陵(PC7)을 瀉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肘攣筋急에서 選穴한 尺澤(LU5)을 보면, 風寒濕이 上肢에 侵入하여 팔꿈치 部分에서 머물러 痙攣과 筋急을 誘發할 때, 水가 모이는 肺經의 尺澤(LU5)을 選穴하여, 治療穴로서 使用할 수 있을 것이다. 醫學綱目과 東醫寶鑑 모두 風寒濕으로 인한 痺症으로 보고 尺澤(LU5)을 阿是穴로서의 작용뿐만 아니라 經絡적인 側面에서도 考慮하여 위와 같이

選穴했을 것으로 思料된다.

東垣十書에서 引用했다고 한 ‘肩不可動 臂不可舉’을 보면, 東垣이 가장 重視하는 脾胃에는 藥物 投與를 하고 直接的인 選穴을 하지는 않았으며 升降을 主管하는 三焦를 選擇하여, 關衝(TE1)과 淸冷淵(TE11)을 炎症으로서의 熱을 瀉해주는 目的으로 選穴하였고 阿是穴의 側面으로 痛症이 誘發되는 곳에 肩髃(LI15)와 巨骨(LI16)을 選穴하였다고 整理해 볼 수 있겠다. 三焦는 東垣이 重視했던 原氣의 ‘別使(原氣之別使)’이며 全身의 氣化를 調節, 總括하여 精氣血津液을 全身에 보내는 것을 主管하므로 脾胃에서 만들어진 原陽을 四肢로 輸布하는데 중요한 役割을 한다.

肘痛에 관련되어서는 대부분 阿是穴이 主가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發病의 原因에 따라 選穴된 足陽明胃經의 穴들이 根本을 치료할 수 있는 穴들이라고 할 수 있다.

肩部の 病變의 경우에는 痛處의 經筋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經絡을 따라 手部の 五俞穴을 選穴의 기준으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臂痠攣의 경우에는 火熱이 原因이므로 이를 치료하는데 針灸 目的을 두었다고 보여진다.

腕痛에 關해 東醫寶鑑에서는 外感이든지 內傷이든지 關係없이 選穴하고 있다.

少陽經의 穴들을 使用하여 內外 사이를 調節하여 平衡失調로 上下, 內外, 前後의 사이에서의 氣血 調節의 失常으로 인한 病變을 治療하였음을 알 수 있다.

V. 結論

1. 上肢의 陽明經에 病變이 發生했을 時, 診察시 參考해 볼 수 있는 穴이 肩髃(LI15)이다.
2. 東醫寶鑑에서는 上肢의 病變을 크게 外感이나 內傷으로 分類하고 있다.
3. 外感으로 인한 病因으로는 주로 風寒이 언급되고 外感으로 인한 病變의 경우에는 대부분 침입한 經筋의 痛症 部位의 穴들이 選穴되고 五俞穴과 上下接境을 利用하여 選穴된 穴들이 使用된다.
4. 內傷의 病因으로는 痰飲과 瘀血로 인한 것이 많다고 언급되고 있다. 痰飲과 瘀血로 인한 病症에 對해 藥物의 投入이 主가 된다. 鍼灸法은 助力의인 역할을 하는데 痛症이 發生하는 部位의 經筋部分에서 臟腑의 內傷과 關聯된 穴들을 取한다.
5. 內傷이 病因일 경우 經筋部位 외에 選擇되는 主經絡은 手少陽三焦經이며, 選穴은 淸冷淵(TE11), 關衝(TE1), 外關(TE5), 液門(TE2), 中渚(TE3), 支溝(TE6)가 있으며, 上下接境으로 足少陽經의 竅陰(GB44)과 肩井(GB21)이 있다.
6. 虛證(內傷)과 寒邪(外感)의 結合된 病變으로 本 偏枯는 血을 主하는 心臟의 문제로 보고 心을 직접 瀉할 수는 없고 心包經의 熱을 瀉하는 穴로 子穴이자 土穴인 大陵(PC7)을 選穴하였다.
7. 움직임 中, 均衡을 잃어서 發生한 打撲이나 外傷으로 인한 病變에도 痛症이 發生하는 部位의 經筋을 따라 選穴하고 있으나 主된 穴位는 均衡을 다시 잡아주는

三焦經에서 選穴을 했다.

참고문헌

1. 田溶敏. 再編附翼 東醫寶鑑 (1) 內景篇 外形篇. 서울 : 東源文化社. 2001 : 73, 141, 231, 240, 242, 246, 275, 283, 292-3, 299, 307, 319, 322, 325, 467, 701, 855-63.
2. 田溶敏. 再編附翼 東醫寶鑑 (2) 雜病篇. 서울 : 東源文化社. 2001 : 249, 321, 619, 645, 699.
3. 王執中. 針灸資生經. 中和 : 旋風出版社. 1969 : 245.
4. 樓英. 醫學綱目. 서울 : 一中社. 1984 : 227-8, 356, 381-2, 395, 1174.
5. 전국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대학경락경혈학각론. 원주 : 의방출판사. 2009 : 18-9, 69-70, 73-4, 77, 80, 99, 100, 112, 121-2, 133-4, 458-9, 461, 463, 468-9, 808-9, 811, 848, 869-70, 872-4, 876-8, 884, 895-6, 990-1, 1061-2.
6. 陳大舜, 曾勇, 黃政德. 各家學說. 서울 : 대성의학사. 2001 : 155, 160.
7. 鍼灸大成校釋. 서울 : 대성문화사. 1983 : 1110-2.
8. 金庚植. 鍼灸治療要鑑. 서울 : 의성당. 2008 : 207.